

# 커튼을 걷어라

정보



## 소개글

"커튼을 걷어라"는 이미 종이책으로 출판되어진 책이나 전자출판 시대에 맞춰 전자책으로도 발간한 것이다. 책의 머리말과 홍윤기 한국외대 한국시 담당 교수님의 시평 등은 전자책에서는 빠져 있으나 시의 내용은 전부 실었다.

# 목차

1	제 1장 산나물 같은 봄날	4
2	제 2장 등에도 표정이 있다	17
3	제 3장 커튼을 걷어라	30
4	제 4장 나는 몰랐네	47
5	제 5장 기대감은 나를 추락시킨다	59

산나물 같은 봄날

여는 창이  
아침에 먹은  
냉이 된장찌개처럼  
싱그럽다

밥숟갈 들어 간  
입이  
봄바람처럼 가벼워 그럴까

일기, 2006년 2월 2일

봄쯤 시집詩集 출판을 갖기 위해  
시상詩想에 방해 될까  
다른 글을 자제한지도 몇 달째다.  
문맥상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는  
머릿속의 습관적 혼돈을 두려워해서다.  
남들이 들으면 별 일을 갖고 다 고민한다 할 일이다.

일기

철창이 없어 그렇지 영락없는 감옥이다  
빈 화로같이 썰렁한 사람의 온기조차 사라진 방 안은  
밤 새鳥조차 잠들어버린 병어리 같은 절간마냥  
찬장의 사기그릇처럼 고요만이 흐른다

핏발 선 눈알은 곰팡이 낀 계란 같고  
기세등등하던 어깨는 봄날의 얼음처럼 처져 내리며  
몸뚱아린 삶은 문어처럼 늘어져 있다

오갈 데 없는 머릿속은 차라리 고도孤島  
그저 하늘이 내려앉아 땅이 꺼지길 바라는  
푸념의 노숙자처럼 방안은 어두운데  
멍청한 시인의 텅 빈 머릿속 역시  
퇴근한 공장의 재봉틀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누운 가지가 다시 하늘을 향하듯  
떠다니던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겠지  
무심히 지나치는 차량 행렬처럼  
골목길을 돌아 은행 앞 사거리를 건너  
땀내 나는 운동을 다녀온다.  
바람이 냉동실처럼 다시 차다.

검은 하늘엔  
토라진 마음 닳은 초승달 끝이  
창날처럼 뽀족한데  
가로등 불빛에  
길 잃은 나그네처럼  
그림자 하나 애처롭게 따라 온다.

일기, 2006년 2월 9일

늦추위에(새벽 한 시는)

몇 년 묵은 김치처럼  
코끝을 치는 싸함이  
늦은 겨울 길을 막는다.

비켜 치워진  
눈 더미 한 뭉치가  
덜어놓은 공기밥처럼 소복한데  
어렴풋이 아는 얼굴이  
내 눈길을 피해

미끄러운 길을 핑계 삼아 비켜 나간다.

다시 볼 거야,  
질척이는 물은 싫어도  
목화송이 같은 눈발이 날리는 날이면  
늘 창가에 서 있곤 했었으니까.  
눈은 봄조차 시샘하거든  
예쁜 여자애처럼

없다 하면서도  
바랄 게 없던 이 겨울은  
남길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가져가겠지  
미운 정 하나까지 가져갔으면  
좋으련만

낮엔 소식이 하나 왔다  
다음 주에 맥주타임을 갖자면서

늘 마시는 맥주  
몇 박스 채로 주문하는 맥주면서도  
벌써 목이 썩 하게 시원해 온다.

고루하게 살 필요가 없는 인생  
즐거운 자리였으면 좋겠다.

벌써 또 하루가 간다.  
열두 시를 넘어  
새벽 한 시가 다가온다.

새벽 한 시는

눈 감은 새벽  
까맣게 다 잊은  
새벽 한 시는

어제를 보낸 새로움

부르는 손처럼  
또 다른 오늘을 맞는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

달려오는 기차 같은  
여명의  
가슴 벌려진 희망

깊은 잠을 못 이루는 요즘,  
오늘 밤은  
누에고치처럼  
꼭  
자고 났으면 좋겠다.

일기, 2006년 2월 22일  
독도

독도 문제로 뉴스가 시끄럽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자기네 섬이라고 우기면서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한 지  
만 일 년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에 질세라  
몇 주민이 주소를 독도로 이전하고,  
살다가 태풍의 피해로 울릉도로 와 살던 이가  
다시 독도로 옮겼다 한다.  
정부에서 새로 집을 지어주었다는데

물이 없다고, 식수는 울릉도에서 길어다 먹는단다.  
그 같은 절해고도에 살기도 만만치 않을 듯싶다.

이름처럼 외로워 슬픈 독도  
그 쓸쓸함이 오늘 내게도 온다.

독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은  
더 나쁘다

그 건  
후대의 몫을  
허락도 없이  
내주는 일이니

일기, 2006년 2월 23일  
방화

집 건물 전면에  
일 평방미터 정도가 불에 시커멓게 그슬렸다.  
쓰레기를 놓아 둔 자린데  
누군가가 새벽에 불을 놓았던지  
아니면 담배꽂초 버린 것이 원인인 듯싶다.  
작년 봄에도 건물 뒤 쪽에 불이 나서  
소방차까지 동원 된 적이 있다.

나 몰라라 불 지르는 심보,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는 치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  
이 모두들이 세상을 탁하게 만들어 나간다.

방화

불이 난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다  
불도 튀고 물도 튀다  
발걸음들이 바쁘고  
마음도 따라 시커멓게 탄다

불 지른 놈은 재밌을까  
장난이 사람 잡는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오래도록 진정이 안 돼

일기, 2006년 2월 24일  
만취 후회 (술타령)

머리가 무겁다.  
지근지근 수시고  
바가지로 물을 퍼마시는 꿈을 꾸다.  
그래도 갈증은 풀리질 않는다.  
어찌된 일인가.

반추해 보니  
새벽녘이 보이며,  
야참으로 맥주 한 병을 꺼내  
홀쇼핑에서 사 온 소고기 육포와  
과일을 깎아 놓는다.  
한 잔 쪽 마시니  
입이 냉장고처럼 시원하고 생기가 돈다.

다시 또 한 병  
일배일배 부일배一杯一杯復一杯  
이태백 흥내를 낸다.  
술은 양인 대작이랑는데  
외로운 소객은 떠들 이도 없이  
잘도 마셔댄다.  
어느새 냉장고에 넣어 둔 찬 맥주가 사라졌다.

미지근한 건 싫고  
'좀 더 넣어 둘 걸, 그래 그만 마셔야지...'

헌데 머릿속이 회전하더니  
오래전부터 넣어 둔 술 병을 기억해 낸다.  
손은 어느새 화이트 와인 병의  
코르크 마개를 돌려대고 있다.  
‘그래 더 마시는 거야.’  
차고 달콤한 맛이 맥주와는 또 다른 맛이다.  
‘자 마시자! 술도 아무 때나 땡기나 뭐  
마시고 싶을 때 더 마시는 거야...~ ‘  
어느새 새벽 4시가 넘어가는 바늘이 보인다.

와인마저도 다 비운 후에야 어지러운 몸으로  
침대에 안겨 쓰러졌다.

#### 술타령

한 잔 술은 어린아이 고배孤杯라 하고  
두 잔 술은 외로워서 단배單杯라 하며  
세 잔 술은 품위 지켜 품배品杯라던가  
넉 잔 술은 어지러워 효배醜杯라는데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대보름 날 귀 밝기 술 못 마신게지

머리가 지근지근  
왜 그리 마셔댔는지  
후회스럽기만 하다.

일기, 2006년 3월 1일  
계절을 보내며

시샘 추위, 어제는 가랑비가 종일 내리더니  
밤엔 흰 눈이 고추장독 위에 덮은 소금처럼 조금 내렸다.

치워진 밥상만큼이나 그렇게 또  
겨울은 잊혀져 가겠지만  
지난 이 계절은 그래도  
내 마음 한쪽 부분에  
판박이처럼 남겨져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나 시작은 있고  
동기와 계기를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시에 묻혀 살기를  
지난겨울은 내게  
용수철처럼 힘으로 다가왔으니 말이다.

계절을 보내며

흐르는 물처럼 한동안  
그저 변화 없이 살다가  
무심히 물레방아처럼  
그저 욕심 없이 살다가

문득 떠나려가는 돌맹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증축한 세월 뒤로 하고  
어딘가로 떠나야 해  
새로움을 만나야 해

자극 받는 나무가 변화 하듯  
새 모습으로의 변화를 바라다면  
불어오는 바람에도 자극 받아야 해

그랬더라도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욕심 없이 차분한 준비를 해나가야겠지  
긴 여로를 준비하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일기, 2006년 3월 3일  
시계 지적

머리는 몸뚱아리의 편한 꼴을  
두고 못 본다.  
좀 누워 쉴라 하면  
공자가 한 말을 생각해 내기 때문이다.

그랬단다.  
차라리 장기바둑을 돌지언정  
멀뚱히 누워 있는 건 안 된다고  
  
오늘도 쫓아가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쫓겨 가야만 하는 건지  
머리는 시계처럼  
잠시도 쉬지를 못하게 한다.

시계(지적指摘)

빈대떡처럼 누워있는 허파가  
숨이 차다  
소용돌이 요동치는 심장도  
뜨겁다

쫓쫓 쫓쫓

잠자는 땅덩이도  
일어나라 외쳐댄다

쫓쫓 쫓쫓

기다릴 틈 없다고  
먼저 떠나면서

쫓쫓 쫓쫓

한심한 놈이라며  
혀를 차댄다

일기, 2006년 3월 6일  
경칩, 봄

개구리 보일 테니  
새싹에 밀려 떠오른 봄이  
단 입김으로 들과 숲을 부를 게야.  
눈 뜰까말까 선잠 자는  
산도 깨울 게야.

더 자야 게으름이겠지

성급한 목련은  
눈도 비비지 않은 채로  
애기 입 같은 미소로 망울을 틀 텐데  
왠지  
봄소식에 내 마음도 따라 급하다.

### 봄춘

딱 막힌 겨울 방 창문을 열면  
먼 바다 훈훈한 남풍이 오고  
환한 마음 반가워라 가슴을 열면  
사랑담은 입 소식 품에 안기네

그 입은 작년에도 다녀갔건만  
짧은 만남 작별에 애태운 세월  
그래도 못 잊어 다시 온 입을  
이제는 안 놓치고 살자 하려네

### 기생걸음 같은 봄

아이 웃음처럼

달려 와  
안기더니

춤다 말다

나비같이  
봄날이 간다

### 모정母情

폭우 속 알 품은  
어미 새의 눈처럼  
그렇게 잉태를 하여  
찢어지게 날고도

찾아내야만 하는  
보물찾기처럼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는  
모정은

죽어도 죽어도

폭 안겨야만 하는 서랍처럼  
평생을 끌어안을  
팔 안의 정인 것을

### 입춘은 거짓말쟁이

겨우내 입었던  
찌든 코트 옷깃을 보고 나서야  
철이 바뀐 줄 알았지만  
웃음 지으마 하겠다면  
그 약속의 날은 왔어도  
남들 앞에선 미소 띠고  
돌아서면 무표정한  
장사치의 두 얼굴처럼  
이 새 봄은  
내 눈 이름만  
개나리처럼 화사할 뿐  
갈고리져 풀리지 않은 내 맘 같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 새 봄을 기대하며

가고 오길 이 겨울이  
이번 처음은 아니요  
가버린 중년의 나이만큼  
다녀간 것이련 만은  
날 못가라 막은 이 없고  
묶인 끈은 언제라도  
쉬 풀 수 있으련 만은  
늘 그 끈을 핑계대고  
불잡혀 살아만 간다

겨울이 춥다한들  
쓰라린 추억만은 못하지  
봄이 따뜻하다 한들  
사랑의 포옹만이야 하겠어  
보내는 겨울처럼  
싫은 추억 떠나보내고  
달콤한 포옹처럼  
사랑 담겨 오는 봄  
새 신처럼 찾아 왔으면

적송赤松을 보면

저 하늘로 말아 올린 붉은 주단이  
힘줄로 솟구친 동맥으로 불끈하다

태초부터 단군이 여러 국가를 달래  
한 맥으로 잇게 해 준 뿌리의 터전

대대손손 잘 살아라 너희를 지켜주마  
오롯이 큰 기둥으로 하늘을 떠받치니

내 안의 용솟음이 한반도의 황토처럼  
따라 끈적이는 힘으로 사뭇 탱탱해져

책상이 어느새 시인의 흰 머리칼을 닳았다

여벌 책상으로 쓰이는 밥상이  
큰 책상 옆에 나지막하게  
속 태운 까만 모습으로 있다

무기처럼 책들을  
이고 엮고는  
방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네 가랑이를  
떡하니 벌린 채  
공부 좀 한답시고  
한 자리 차지하며  
거만스런 품으로 말이다

고민을 해도 나오지 않는  
시상詩想

머칠 책상을 마다하고  
다시 보니  
책들 사이사이  
뽀얗게 흰 먼지가  
불만처럼 앉아 있다

어느 샌가 쓰고 앉은  
시인의 손 머리칼처럼

월간 문학지

다달이  
문학지가 월경처럼 찾아온다

두툼한 패드처럼  
누런 봉투에 명찰까지 달았다

늘  
과식하는 우편함에서 그 봉투를 열 때면  
첫 대하는 표지가  
새 팬티를 보는 양증맞은 로고처럼 새롭다

그러나  
클래식 같은 늙은 글자들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훈장질을 해 대는 통에  
돌보길 낀 눈알이 햇볕처럼 따가워 진다

## 뉴 프라자

엽서 같은 부음이 전화로 전해오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만나게 한다

장례식장서  
이십, 삼십 년 만에  
지인들을 만난다

슬픔보다는

지난 이야기들이  
봄꽃처럼 만발 한다

아직도 시금치 같은  
젊음도 보이고  
고사리 같은 늙음도 보인다

자신들의 어두움들은 그물처럼 감추고  
등대처럼 환한 모습들만 내 보인다  
곧 떨어질 꽃처럼  
웃음도 남발하면서

## 간이역

빠양  
국숫가락 같은 철길 위를  
젓가락처럼 기차가 지나간다

쫄그리고 앉아 피워대는 촌로村老의  
갈라진 논바닥 같은 입술로 오가는  
인지와 검지 사이의 담뱃불이  
더 태울 것도 없이 손가락마저 태우는데  
세월처럼 지나가는 기차를 따라  
코흘리개 아이들 같은 먼지들도 따라 간다

촌로의 눈이 피리처럼 가늘어지며  
더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이  
불뚱만 남겨진 담배꽂초를  
바닥에 비벼대며 일어선다

그러면서도 먼데 간 자식 그리는 듯  
눈길은 철길에 붙은 껌처럼  
떨어질 줄을 모른다

달팽이 같은 시간이 지나간 후  
촌로의 꼬랑지 같은 긴 그림자 하나까지  
국숫그릇에 남은 마지막 국물처럼  
후루룩 빠져 나간 대합실에는  
사찰의 빈 사발 같은 한적함으로  
저 홀로 오롯이 또 남겨만 진다

**별이 작게 보인다고 작은 건 아닌데**

빗물처럼 세월이 씻겨져 내리면  
아픈 가슴이야 묻혀진 낙엽  
세월의 반전은 원래의 모습을 버리고  
아픈 가슴도 우스운 모습으로 변모시킨다

어쩌면 그리 냉정하냐고 내게 말 한다  
그러나 어찌 아랴  
흐르는 시냇물처럼 쏟아 낸 슬픔은  
가슴에 있건만  
정인 양 동정 받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그저 허공에 뜬 거미줄처럼  
보려 하면 있고 안 보면 없을 뿐  
가슴 속은 그렇게 연기처럼 모호한 것  
밤하늘의 작은 별이라 하듯  
작게만 보인다고 작다고 말하지 마라

민초民草

위대한 政治여  
입으로

우리는 입이 없어  
귀로 살지만

참지는 못하지  
가슴이 뜨거우니

쫓겨진 장작  
저 나무를 보라

태워도 태워도  
숯은 되려니

## 등에도 표정이 있다

잠자리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불만으로 덮여 온다

쉬이 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안개 낀 섬처럼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등만 보이고 떠난 네 모습 때문에

환했던 표정이 바뀌진 것이다

그냥 조건 없이

웃고만 있기에는

속없는 강정 같아서 싫고

나무라기엔

조건 달린 까탈스러움 같아

망설여진다

이미 꼬인 실타래

그냥 싹둑 잘라내고

잠이나 빨리 왔으면 좋으련만

불만스런 새벽은

노인의 발걸음처럼 느리기만 하다

## 돋보기 哀想

옛날이야기 하나  
얼굴에 걸려 있었다

어릴 적, 내게는 오지 않을  
그런 수염 단 인물이  
코에 걸쳐 귀에 걸고는  
어지럽게 두 배로 보이는  
글을 내려 읽었다  
깊은 계곡처럼 패인 주름은  
삶만큼이나 진지했으나  
글자를 보다 말고  
쳐다보는 눈길은  
비판적인 듯 매서웠다

아빨싸  
어느새 그 걸  
내가 끼고 사는구나  
옛날이야기처럼

## 지천명知天命

바람처럼 떠나버린

歲月은

반백의 흰 머리칼만

남겨놓고

흐르는 강물에도

아니 가고 못 배길

현재는 이미

춘음寸陰의 과거

인생무상

냉정한 시간은

가고 오지 않을

작별의 손이런가

천명天命대로 살라거늘

그리는 살았는가

천명天命대로 살라거늘

그리는 살 건가

벌써 인생을 논하고

내세來世를 걱정하며

지난 세월 그리워

청춘을 돌아보네

회한悔恨

마음은

흑빛 그림자처럼

어두운데

머릿속은

댄서의 발 마냥

바쁘기만 하다

죽대 없는 마음은

영킨 실처럼 긴 방황 끝에

한 가닥 갈고리 진 과거를

끌어 올리며

눈물 터진 폭포수처럼

울분을 흘려 내린다

그러면 나는

또 가슴을 쥐고

끊어내지 못하는 실을 감고

밤 새 잠 못 들어야 한다

샤워를 하는 몸은 매력이 있다

좌좌

사내녀석처럼

잔등일 때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동화다

목을 간지르고

탱탱한 가슴에 기름이 붓는다

똑똑

잔머리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머리 없는 피부가

젖은 몸으로만

눈에게 아부 떠다

알겠습니까

내가 슬퍼지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마 모르겠지만,

난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배 아파 울던 아이가 아닙니다

기차에서 떨어져 반죽음 때도

고문으로 두들겨 맞았을 때도

난 울지 않았었습니다

그대여!

새까만 칠 속에 내가 점점 작아지며

끝도 없는 나락에 빠져들던 밤,

땀 흘리며 두려움에 떨던 나를

냉수 떠 놓고 두 손 빌며  
근심으로 치성 드리던 어머니  
그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이 막연함에 슬퍼지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해장국이 그리워

위장이 뒤집혀 오며

일렁일렁

너 떠나던 모습처럼

속이 일렁거린다

죽을 듯이 마셔대던 소주가

목까지 차오르고

속에서 화약처럼 불이 나더니

소방차 부르듯 해장국을 부른다

선지에 콩나물 넣은 장국

모락모락 파 송송 썰은 국물이

배앓이 달래던 엄마 손처럼

그리워

## 냄새자락

줄에 묶인 채

주인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코를 킁킁거리며 맡는 개 같은 냄새를 기억해 낸다

노른 듯 무른 똥 덩이를 떼어내고

하수구 앞 호수를 들이대고 비벼 빨던

시금 털털 고약하지 않은 애기 기저귀 냄새를 기억한다

벽이 누렁도록 피워 댄 할아버지 담배연기에

찌든 삶이 싫어 내 뺨는 이산화탄소처럼

고리타분하게 막혀 오는 탁함을 기억한다

헉하고 숨 막히게 달려드는 자동차 매연처럼

홀아비에 붙어나는 소금 같이 변치 않는

게으른 땀 냄새를 기억한다

싸구려 향수에 섞인 가면 쓴 얼굴처럼

알 듯 모를 듯 밑바닥에 깔려진

여인의 치맛속 덜 익은 매실 같은 냄새를 기억한다

내일은 또 어떤 향이 내게

치마 끝자락 같은 기억으로 들어와

머리 한 구석에 들어앉을까

## 가식의 자리와 술

어젠 또

거절하지 못하는

연인 같은 술이

날 불러 댔다

핑계야 말이 친구지

앞자린 그저 엑스트라

술이 목을 타며

혼을 끌고 넘어간다

술술 상대의 말소리는

립싱크 되고

사람 좋은 척 허허 댄

그 위장 속에

꺾인 가지처럼 상처 하나

던져오면

과거는 채찍처럼

술자리에 끼어든다

이기는 척

못 이기는 척

술은 다시 나를 달래고

널브러진 몸으로

다시 찾은 집은

취기 전의 내가 아닌 타인

그 놈의 술

절대 보지 않을 원수처럼

원망하지만

그래도 며칠 지나면 다시

돌고래 표정 같은 그 술을

또 찾아 나설 것이 분명한 술

술은 정말

이길 수 없는 마누라다

홀로 먹히는 밤

얼룩말처럼 낮과 밤이 교차하는

포장마차 황색천막에

만화 같은 큰 그림자 등에 업고

소줏잔을 내려다본다

잔 속에 비릿한 달이

돌아앉은 네 등과 포개져 있다

뒤쳐진 수사자의 흰 머리칼 같은

회한도 들어 있다

까짓놈의 잔영이야 있건 없건  
내 몰라라 마셔대건만  
지우려 마시고 지우려 마셔도  
자꾸자꾸 생겨만 난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반기는 문고리 핵 뿌리쳐  
흑백 실내로 들어서면  
와락 먼저 어둠이 날 껴안고

고양이 같은 동공으로  
잠시 장님처럼 벽에 기대면  
거기엔 공룡 아가리 같은 방이  
언제나 나를 지우개처럼 먹는다

## 은행나무

고추바람에 매워 떨어듯  
은행나무가 간지러워

경기驚起를 일으킨 아이처럼  
다닥다닥 파란 애기 손이 금세 노랗다

한장 한장 진황眞黃의 동정同情은  
제 발을 덮어 흐느끼고

찬바람에 가는 철새 끼룩끼룩  
작별 인사를 길게 전하고 떠나면

한순간 장고長考의 철학자는  
철사처럼 긴 외발의 학이 된다

## 장애 비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밤을 지새우는 바늘 같은 절규의 메아리  
어깨를 짓눌려 통하지 않는 양팔의 단풍 같은 마비  
떨어진 처마끝에서 튀겨져나가는 초라한 방울 같은 처량함  
낙엽색으로 변해가듯 차오르는 죽음의 서막을 알리는 회색의 그림자  
그리고 빗나간 주위의 시선

내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늘에 대고 불평조차 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할 억눌림  
시거에 살아야 할 조각진 시간들의 짜깁기 같은 잔영들

아픈 거야 뭘 어쩌겠어

타고난 복이 그러할지니!

허나 걸은 멀쩡하면서도 탄저병처럼 말라가는

정상인들의 정신적 부재는 감춰지고

도마뱀처럼 잘려나간 작은 외형에만 손가락질 해대는 비굴함들이

피고름 딱지처럼 더한 고통으로 여럿 남겨져...

눈물 흘리면

별이 녹아

비틀거리다

눈썹 되어 내게 오면

은하수 젖어

질퍽거리다

비雨 되어 내게로 오면

반짝 빛나는

오석烏石 같은 눈동자  
한줄기 주르륵  
사연을 잉태한 눈물인 채  
말없이 그 뺨을  
내린다

떨어지면 이내  
사라져버리고  
손 한 번 훔치면  
언제 그랬던가 하는  
그 흔적

그렇지만 나는  
아! 나는  
어쩌란 말이나  
뉘싯바늘처럼 걸린  
이 뻘죽해진 가슴은  
어쩌란 말이나

### 커튼을 걷어라

아무도  
보기 싫은 더듬이처럼  
소라고둥 속 같은

어둠에  
들어앉을 때

살 터진  
문틈 사이로  
날 불러  
밀물처럼  
너울이 인다

꼭 닫아 걸린  
누운 가슴에  
그래도  
허브처럼  
정이 안기면

한가락  
실눈 같은  
빛을 따라  
장대처럼 손을  
내 민다

그리고  
빗장처럼  
묵은 가래를 뺏는다  
스스로 감은  
태胎도 걷는다

## 목련 愛戀

### 1- 春

세수하기 싫다는

아이처럼

그렇게 흔들어 대는 목련 잎을

반백의 흰머리 같은 빗줄기가

아파라 아파라 하듯

때리고 또 때린다

그 잎은 어느새

세수 안 한

피죠티한 모습을 버리고

생선가게 물 뿌린 고등어 등처럼

푸르다

### 2- 秋

멋 부린다고

몇 장

머리칼처럼 부릿지 했다

억지로 함께 가자는

지팡이 같은 빗줄기

쫓아라 마라

잎은 어느새 낙향하며

어머니 치마 싹지로 끌려간다

심술부리던 이파리 모습이

떠나는 배처럼 더 서글프다

### 3- 我

덜 마른 빨래마냥

습기 먹은 눈

숨겨진 애련

아궁이 피어오르는 가마솥 수증기처럼

알 수 없는 헤아림만 계속

비처럼 쓸려 내린다

### 결혼소식 있던 날

의자에 오래 앉은 실증으로

바람 쏘일 겸 빌딩 옥상으로 나갔다

멀리 남산은 미동도 안했지만

주위의 나무들은 빨래 털듯 흔들렸다

턱을 치켜들어 그 상쾌함을 빨았다

그냥 구석을 향해 발을 맡겼다

그런데 거기엔

누군가 사과 껍질만큼 흙을 옮겨다가

뒷발을 일궈 놓았는데  
난 웃음 짓다 못해 눈물겨웠다

시금치가 다닥다닥 돌아났다  
상추는 어느새 몸을 태웠는지 초콜릿을 바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 큰 처녀 엉덩짝만 한 호박잎이  
얼굴을 반짝 들고 있었으며  
가장자리의 옥수수 몇 가닥은  
내 가랑이와 키 재기를 하겠다

그것도 땅땀기라고  
흙 가장자리엔 땅 주인 손을 벗어난 명아주가  
한 손으로 셀만큼 꼬사리를 하고 있는  
도시 옥상 한 구석의 그 성전聖田은  
시작을 알리는 결혼처럼  
그렇게 시작할 생명들처럼  
내게 여럿 가르침으로 몸에 담겼다

바람이 다시 푸른색을 칠하고 내게 달려 안겼다  
결혼 소식으로 귀걸이 단 난  
그 달려든 바람 한편을 떨쳐내지 못한 채  
느릿한 블루스 걸음으로 돌아 내렸다

## 경복궁

용마루 엄숙하게 자리한 밑에  
고운 참빗 빗살 같은 처마를 따라  
햇살 반짝이는 낙수洛水를 보면  
군신君臣의 옷자락 눈에 어린다

연못을 돌아들어 경회를 바라보니  
아악雅樂 소리 내 귓가에 들려오는 듯  
기쁨보다 도는 눈물 젖는 옷섶을  
누구라 말하려나 그 사연들

충신은 울면서 어디로 갔고  
간신의 웃음소리 어디 갔는지  
늪어버린 장송長松은 말할 힘없어  
물어도 대답 없는 공허만 있네

아! .....

한 서려 고인 못澤은 임금의 옥루玉淚 인가  
흑黑기와 발광發光 곁은 비늘 같아도  
승천한 용龍 빈 허물만 남아 있구나

## 배암

춤바람 나 한 줄에 묶여 온 갈보들처럼  
장사치 포대자루 속에 꽃뱀들이 그득하다

연꽃 같은 구멍이 열리고 한 무더기 꺼내자  
때 벗긴 하얀 배가 근지러워 바닥을 비벼댄다

인간들이 담을 이루고 그 뒤는 목을 뺀다  
독야탁음獨也濁音이 목에 핏대를 세운다

"자! 배미요 배암...~"

꼬물꼬물 무쳐놓은 콩나물 같기도 하고  
주물주물 버무려 논 고사리나물도 같다

꾸역꾸역 통째로 밀어 넣는 뱀들의 식탐이  
스물스물 비방하던 네 헛바닥으로 겹쳐 온다

배고픈 입맛이 싸악 가신다  
식당으로 가던 발길이 싫어

뼈꼭시계엔 뼈꾸기가 없다

뼈꾸기가 우리집엘 날아들었다

모두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어디 거쳐 갈 데가 한두 군데라야지

그래도 그런 요물이 우리 집엘 다 왔으니

식구들의 표정은 처음 본 사돈처럼 밝았다

나 역시 예쁜 여자를 대한 것처럼 밝았다

자 이제 잠을 자야지

우는 소리는 차차 듣기로 하고

그 새는 우리네 삶의 우여곡절은 아랑곳 하지 않고

늘 낭랑하게 울어댄단다

재! 나는 세상을 잊으려 잠을 청하고

이순신도 아닌 게 전전 야에 내 허리 등짝은 파도를 탄다.

겨우 잠이 들었을까

드디어 일갈의 소리가 들렸다

이는 잠결에 들린 나를 가르치려는 청아한 소리였다

나는 무아지경으로 그 소릴 듣지 못했다

다시 들린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개!

나는 꿈속에서 울려대지 않는 종을 부여잡는다

뼈꼭

뼈꼭 뼈꼭 ...

손가락을 다 꼽아 세어 봐도

몇 번인지 기억해 낼 수가 없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같이 모시지 않는 며느린 늘 효부라던가!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리를 들고 말았다  
그렇게 뼈꾸긴 고성대규 죄로 사형私刑의 주검을 맞았다

그런데  
난 이제사 후회한다  
징징 냉장고 칭얼대는 소리  
칙칙폭폭 밥통이 울어대는 그 소리들 다 참고 살아왔던 뼈꾸긴  
그 잘못이 없었다고...

### 고등어 살 한 점의 추억

사춘기적 남의 집 잔칫상 한 자리에 끼어 앉아 밥을 먹는다.  
하얀 쌀밥이 소꿉놀이하던 흰 모래알처럼 정말로 곱다.  
불속 젓가락 하나가 내 밥 위에 돌팔매질처럼 날아든다.  
맞은편 엄마가 발라놓은 고등어 살 한 점 올려졌다.  
남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 수치스러운데 엄마 상관없다는 눈치다.  
어여 빨리 먹거나 하라며 거북이목처럼 손을 주먹 거린다.

한 겨울 대리석 같은 전차 의자가 차가워 빈자리도 앉지 않다가  
남이 일어나면 재빨리 앉아 온기를 찾아내던 추운 그 겨울  
아홉 살 투정부릴 나이에 냉랭거리며 기어가는 전차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 본동까지 통학했어야만 했던 더부살이 왕십리 길은  
그 긴 전차길 만큼이나 나를 오래 눈물 괴이게 했었다.

구슬치기 안하고 만화도 보지 않던 어른 같은 아이는,  
그렇게 벽에 기댄 채 다른 아이들 노는 것만 보던 아이는,  
사실은 새끼 떠난 캥거루 호주머니처럼 빈 주머니였기 때문이었다.  
말썽도 없었고, 단 한 번 사고치지도 않게 착실히 자랐다는 얘기는  
사고 치면 돈 들까를 먼저 떠올려야만 했던 소심함을 모르는  
엄마의 한결같은 나를 향한 칭찬거리였다.

그렇게 한겨울 면도날 같은 아픈 기억들은  
오랜 시간 뾰족한 상처로 남아 칼집에 꽂혀있는 채  
얼굴가린 강도처럼 대상을 찾는 어두운 뒷골목의 숨소리 같은 아집으로 남아  
해진 탈피껍질을 식은 가슴에 매단채로 달고 다니는 뱀처럼  
흉한물골을 볼 줄 모르는 겨울 없는 형상이면서도  
귀족 같은 클래식 음률만이 귀에 묻어나길 바라는 타고난 나르시시즘의 모순을  
이제야 알 수 있게 된,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을 삶의 내버려진 회한들이란 걸

흰이 녀은 이 나이되도록 막내라며 살붙이하려는 어머니  
내 몰인정한 손은 팔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다는 여든 노모의 등을  
토라져 외진 고개 돌리듯이 형 집으로 떠다밀었다.  
뭉클 저러다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 회한은 어찌하려고  
소리 없이 떨어져 앉은 동해 한가운데 독도처럼 외 젓가락 놓인 식탁에  
뭉클뭉클 발리어진 고등어 살 한 점이 팽이처럼 어지러이 눈물 고이게 한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누가 발자국도 없이  
그림자처럼  
다녀갔는지

나는 몰랐네  
하늘이 언제 머물러  
빗물이 땅에  
도리깨질을 해냈는지

시계 초침 소리  
헐거덕 숨넘어가고  
가을 귀뚜라미  
윤창을 해대도  
나는 몰랐네

나무라게나  
부처 실눈 따라간  
내 얼  
그리고 눈 밖에 난  
내 혼을

## 어릴적 이발소

어머니 손에 끌려 간 대여섯 살 적  
하얀 천에 목만 내놓고 돌려 처진 채  
팔걸이 위에 놓인 판자에 앉아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가 무서워  
울던 아이 모습이 거울 속에 있다

연탄난로 연통에 마술 같은 술 비누거품  
가죽 혁대를 자신감으로 잡아 쓱쓱  
백정처럼 문질러 대던 무시무시한 면도칼  
버려질 것이라곤 없던 시절  
그 유일하게 버려진 머리카락을 쓸어 담던  
꼬부랑할머니 같은 몽당수수빋자루  
철학도 없는 싸구려 짙은 포마드 냄새

대기 차례를 기다리는 나무의자에  
흐트러진 여자 표지모델처럼 쌓여진  
원색의 닳아빠진 잡지와 만화책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쉬킨의 "삶" 이란 시를 처음 대했고  
밀레의 "만종" 과 "물레방아가 있는 시골 풍경" 이

명화인지도 모르고 싸구려 같은 인식으로만 그저 보았던  
촌스런 서너 평 서너 개의 이발 대가 놓인 곳

그 먼지 묻은 시와 그림 속에서도  
턱 문지르며 품 재던 어른들 모습들이  
지나간 코흘리개 소년처럼 들어 있었다

#### 다 큰 자식 속 썩인 날

어미 개 헛바닥 같이  
활아 대는 정으로  
길렀다

못 보이는 사랑은  
누른 가슴 되어  
멧돌로만 살고

그래도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쉽 없이 도는 것

속 썩인들 어찌라

눈물 없는 소 눈처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 학자금

서울로 유학 갔던 형이  
돌아 왔다

밤새 안방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음날  
옆계 이는 먼지 황톳길

한 발  
소 줄 앞서 가던  
검정 고무신  
힘없는 아버지 발자국이  
애벌레 기어가는 모습처럼  
촉은하다

## 비 오는 남한산성에서

쫓겨 가는 머느리 치마처럼  
흙바닥 둘러 처진 돌 성벽이  
칙 빛 구름바다로 내려앉았다  
멀리 신하처럼 송파를 한강이 끼고 돈다

지나는 오색 객들이 많으면 무얼 하라  
서럽긴, 쫓아 낸 시어미처럼 원망스러운 걸

내 발로 걸어 차오른 숨이  
한 판 빈대떡 막걸리 사발로  
저린 세월을 내려 받으란다  
잊지 말고 꼭뿔으로 받으란다

더 볼 것도 없이 그저 슬프다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 이 고도에  
백성은 어디 두고 용만 모셔질쏘냐

둘러보아야

양반걸음으로도 길지 않은 시간

슬퍼도 내 갈 집 있으니

여길 떠나가야지 어쩌겠나

날 두고 가지마라는 듯

인조 임금의 시린 눈물 같은 비가

힘없는 내 바짓자락을 질척히 막아선다

## 일몰

손거울 같은

정열의 색경色境을 따라

가자가자 말발굽으로

땅을 박차고

심장으로 불질렀던

비트는 눈부심이

해바라기를 안은

나비 꿈을 버리고

고요의 진정鎮靜으로

잠들어 간다

입동立冬

나 싫어 떠나면 그만이지

먼지 가슴 몹시 싫던 날

지나는 바람이 나를 부른다

실땀처럼 사늘한 바람이 나를 부른다

휘휘

하늘이 대竹 끝에 찢려 높은데

고개 쫓아 따라 걸린 바람이

풍금처럼 가로수에 쓸려온다

땅을 밟은 고엽이 마른 가지보다 슬프다

빈 손 내민 하늘은 썩은 과일처럼 허무한데

송송 뚫린 스웨터 사이로 바람이 든다

그래도 여자애 장난치는 손길 같아 싫진 않다

누나 같은 호주머니가  
박빙처럼 찬 손을 자주 부르는데  
술에 누운 땅은 가라마라 혼란을 부르고  
빛쟁이 겨울 맞은 지린 몸이 찌릿 벌써 떠다

## 나이

세월은 대지위에  
허허로이  
돌멩이만 남아 놓고

인생은 세월따라  
이리저리  
끌려만 다니더니

김치도 없이  
먹은 나이가  
대나무 마디처럼

또 하나  
늘어만 간다

소한小寒

못 된  
시어미 같이  
날이  
매섭다

얼음 속

마음까지  
찬 떡처럼  
굳는다

## 감나무 애상哀想

강물은 포대기처럼 세월을 안고 내리며

산은 주름처럼忍苦를 안고 사는데

푸른 물들인 가을

하늘을 찌르던 감나무가

이내 황금 계란 같은 눈물을

등등 달고 운다

푸른 옷까지 벗어던진 몸은

이미 알몸

핑 도는 어지러움이 땅을 흔들면

몽클한 감 하나

뚝

눈물처럼 떨어지리라

침병

두레박처럼

감정도 따라 떨어지리라

## 홍합

검은 조개  
속살이 붉다

포장마차  
나 몰라라  
속마음까지  
열어 보였을까

소주 한 잔  
그래도 젓가락에 잡힌  
들킨 내숭이  
사춘기 소녀처럼  
다시 얼굴을 붉힌다

## 한강에서

말없이 꼭 찢러 떨어진 하늘 받아  
깊게 패어 느릿 기어 도는 물줄기

높 낮은 산 소리쳐 굽이굽이 오만하나  
듣고 돌아 회한 많은 인자한 선승이여

태어난 기억조차 저버린 끝에서 와  
신천지 찾아 도는 꿈의 실타래

나 거기 배 띄워 같이 흘러가리니  
가자 팔 벌린 너른 치마의 세계로

## 백사장처럼

맥주를 마시고 묻혀진  
입가의 거품은  
손으로 쓱 문지르기만 하면 되지만  
내 가슴에 밀고 들어온  
저린 거품은  
원치 않는 어둠처럼 닦아 낼 길이 없는데

수억 년 흰 거품에 묻혀진 모래밭은  
닦아내지 않고도 변함없이  
저리 하얗건만  
언제나 내 마음은 저 백사장처럼  
스스로 하얗게 살아가질까

첫 눈

술김에 들이마신 모래알로  
두꺼비 집을 때리고 또 때려서  
만들고 다시 만들었지만  
나 편히 쉴 동지는 나오질 않았다

달아난 가을

쓱 한 번  
연고동색 바람이  
억지 포옹을 해오더니만  
귀신 눈꼬리 같은 찬바람이 되었다

그 바람은 오늘

내 텅 빈 가슴 살고 있는  
소머리처럼 무표정한 서울 하늘에  
다람쥐 꼬랑지 같은 눈을 날렸다

## 인생

덧칠한 분장의 배우들 속에  
불이 켜지며  
불기 짝을 맞을 때부터  
연극은 벌써 시작되었다

자신과 무관하게  
대본도 없이 주어진 대사들  
피곤한 연기  
이미 엇질러진  
리허설도 없던 배역들의 실수  
속아주어야 하는 가증可憎

너는 모를 거야  
내게 속여 산 그 이해理解

살아온 평생을 또다시  
끝내 숨겨야만 할  
없던 대본에 이어지는  
가슴 밑바닥 괴로움

흘러간 강물처럼  
돌아서지 않는 시간들

그래도  
연속되는 신scene

## 치매에 대하여

퍼 죽어라 퍼 죽어라

내 뱉는 말은 욕바가지처럼 튼튼 쓰다

지껄이는 말은 웅알이 해대 듯 종작없고

삼복 늘어진 껌처럼 연명하며

느릿느릿 아직도 거북이 산 모습

머느린 뭐야

딸은 내 피라도 나눴지만

섞이지 않은 죄라서 더 무거운가

어쩌다 한 번 와선

효녀처럼 구는 딸이 더 싫다

아주 먼 실타래 같은 소싯적 흑백 사진

흰 무명치마 누에고치처럼 곱게 입은

장어 피부에 탱탱하던 양 볼도

젓 주고 살 다 주고 갈비뼈 드러난 젓먹이 개처럼

작아진 엄마 모습이 여름 참새처럼 슬프다

자식들에게 바란 게 뭔데 되물어 봐도

사실 흰 종이처럼 아무것도 없었다

착하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며

그저 너희들 잘 자라 달라던 기도밖엔

당신 꿈 하나라도 바란 건 없었다.

헌데 무슨 반역의 칼 씌워진 죄수처럼  
섬뜩한 쇠대머리로 방에 갇히고  
고려장보다 무서운 형벌을 받아내며  
알 수 없는 세월을 더 고문 받아야 할까

신이 판단을 잘 못 내린 걸게야  
아니면 저 건넌마을 암체 영감을 혼내려는데  
손가락 방향을 잘 못 본 집행자의 실수일 게야  
암 실수고 말고 실수고 말고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고  
꿈인지 생신지도 장자처럼 알 수 없다  
꿈 가슴이 메어지고 와륙 억장이 무너져도  
진정으로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

기대감은 나를 추락시킨다

기대감은

결국

나를 추락시킨다

그렇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해서

날개를 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 기대감으로

세월을 보낸다

그렇게

바보처럼

한 세상을

묘비 명

"다시 간다"

먼 여행에서

잠시

돌아왔다가

## 이별 앞에서

두근두근 종치는 소리  
가슴 속 자식을 가두고  
멀리서 들으려마  
산 너머서

푸르르 전율처럼  
소식 하나 들려오면  
음미 하나하나  
또 한 번 눈물 흘릴 터

들어 줄 손이 없어  
안녕이라 말 못 해  
방향하고 말 것을

이루지도 못할 꿈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 싫어서

사死

비워진 잔이

다시 채워지듯

가면 또 오는 것

죽음 앞엔

아군도 적군도 없이

산자만이 슬픈 것

生과 死

이불 속 숨겨 울던

재갈이 힘없던 밤을 넌 모를 거야

숫처럼 변한 가슴

소리 죽였던 절규 역시 넌 진정 몰랐을 거야

살아야 할 가치도

죽어야 할 명분도 알지 못한 채

짜 찾는 뱀처럼 길게 헤메이던

오랜 방향은 결국 나를 내던지게 했었다

내게 와 닿지 않는 풍경 소리

그저 떨어져 구뭇발에 차이는 고엽의 앙금

나와 상관없는 강아지 눈빛의 해맑은 시공時空

자고 깨어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회의

그 모든 것들이 날 긴 시간 개울물처럼 흐느끼게 했었다

어릴 적 달리던 기차에서 떨어져 허공을 가르면서도

순간 옆 칸에서 놀라는 아줌마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 낸다

그렇게 떨어지는 육체의 아픔보다도

서로에게 꼽히는 화살 같은 눈빛을 더 오래 간직한다

그래서 난 육체를 빈 종이처럼 무서워하지 않았다

칼만큼 베일 수 있다는 종인데도 난 무서워하지 않았다

내 차가 코끼리 같은 벽을 안았다

의식이 와류처럼 아물거리는 속에

또다시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비명소리가 중환자실 천정에서 다시 내게로 꽃힌다

내 몸에 고리 진 토성 같은 상처만 하나 안겨두고

그 비싼 미움과 사랑도 얻어내지 못한 채

결국 얻은 것은 없었다

팔아 서푼도 안 될 이 생과 사의 몸뚱아리 하나

그저 달랑 다시 남겨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 별리別離

철새처럼 당신을 떠나보내고  
어제도 모자라 오늘도  
깨진 달걀처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군처럼 서서 큰소리쳐 보냈었지만  
접혀진 그림자 같은 내 모습은  
소리 죽은 젖은 행주 그것입니다

차곡한 성벽의 돌처럼 쌓여진 정(情)인들  
무너진 성처럼 허망한 게 이별이라면  
귀신처럼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것이런 만은

무너져버린 정 주어다 팽개치면서  
다시는 쌓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도 그믐달처럼 소리 못 내어 울었습니다

## 성묘

하늘은 높이 달아나 구름 발자국 남기우고  
산은 멀리 가까이 읊(搢)하며 조아렸는데  
한 뼉만한 봉분(封墳)이 밝아 눈부셔 빛을 발하니  
천년을 누워 편하다던가

명당이란 건 나는 모르는 일ियो  
발복發福이란 건 더더욱 모르는 일  
그저 찬 땅에 눕혀드린 채로  
따뜻한 아랫목으로 돌아가려니  
단지 그것이 죄스러울 뿐

설움도 언제였던가  
잘해야 일 년에 겨우 서너 번 다녀갈까 마는  
그나마 바쁘다는 핑계로  
오기 무섭게 돌아가야 하는  
이 변명의 누(累)뒀을 어찌해야 할까

## 마감 뉴스를 들으며

벌써 날이 바뀐 지 오래  
그 남잔지 그 여잔지  
어쩌면 그리 표정도 없이  
입만 움직이는 만화영화처럼  
하루 몇 차렐가 들은 소리를 뺨긋거린다

아무나 모든 것이 튀어보려는  
모던한 세상이 된지는 벌써  
허기짐도 구역질도 이미 느끼지 못하는  
현재 듣는 저 소식이라는 말들은  
오늘과 내일의 차이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어제의 임은 권태라는 이름하에 떠나갔고  
구걸하듯 새 애인을 쫓아야 하는  
탈 포스트모던한 구태의연의 삶들

신문을 넘겨봐도 별 신통치 않고  
소식이라야 옛그제 있던 일들 같고  
한 권의 책에는 성이 차질 않아  
갈피 꽃힌 책들이 보초를 서는데도  
기분은 매듭처럼 풀리진 않아  
텔레비전 채널만 계속

시외 한 번 나가보지 못하는 시내버스처럼

답답한 쳃바퀴만을 돌고 있다

### 송년送年

밤고 손 펴보니 무색無色한 바람인 것을

내 알았을 때엔

이미 저물어 문턱 없이도 넘어간

지난해 끝에 와 있을 때였다

늘 그래 왔으나 여전히 빈손 내밀어

희미한 형체라도 움켜쥐려 함은

애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초라함으로 남는다

월 보내고

월 맞는단 말인가

어느새

눈가에 잔주름 비춰진 내 모습은

황량한 사막에 내동댕이쳐진 고인孤人처럼

허전하기만 한 것을

그래도  
또 한 해가 온단다  
문턱도 없이

#### 환 자

덧문 하나 열면  
열어붙은 거대한 엽판처럼  
아스팔트가 내려다보인다

달라붙지도 않고 잘들 굴러가는 바퀴들  
비통하게 찢어지는 오후의 엔진 소리  
발가벗기면 곧 얼어 죽을 인간들  
뽕짝, 문틈을 넘어 음률이 들려오고  
시계 초침소리 날 두고 떠나간다

모퉁이  
속살 같은 맨 땅을 한 삼만 푸면  
검붉어 으스스한 피가 솟을 것 같은  
양면兩面의 대지大地  
차가운 창날 같은 햇살

땅 속에 머리 박은 썩은 시신  
그 옆의 잠든 나무들

던져진 빈 화살 같은 시선  
그리고 앞을 가리는 염농鹽濃

#### 일본 지진地震을 보며

땅을 빌려 살다가  
주인이 돌려 달라면 줘야지,  
쩍 갈라지고 크게 꿈틀거려  
용트림 했다.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고  
큰 불이 나는구나.  
전쟁 후 폐허처럼

한숨이 나오고 통곡해 보아도

이미 뒤집혀진 터는 말이 없고  
하늘은 고개를 돌려 별만 쳐다본다.

임진왜란을  
한일합방을  
2차 대전을 잊지는 않았겠지  
일본 백성이나 대한민국 백성이나

고개 숙여 살고  
반성하고 살며  
돌아보며 살자.

그래도 위안하며 살아야지  
작은 몸도 터지고 갈라질 때 있잖은가.  
하물며 큰 땅에 있어 서랴

"이제 그만 수고해요.  
여보, 그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숨이 멎어 인공호흡도 했고  
제 상처를 내 피도 먹었던  
삶의 투쟁 여덟 시간  
처절하고 애통했던 사투의 시간  
사투의 시간

스물다섯 시간 만에 구출된  
아내의 최후 한마디를 기억하는  
남편의 눈물

"우르릉 우직끈 팡 "  
격렬한 진동과 함께 무너진 아파트 기둥  
그 더미에 깔렸던 부부

고국을 떠나 공부를 위해  
일본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온 젊은 아내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 젊은 부부는  
일인日人 땅  
왜 그들 업보業報에 함께해야만 했을까.

아!  
신은 없구나!  
있다 하여도  
돌아누운 신이 무슨 소용 있단 말인가!

- 1995년 1월 17일 신문을 읽고

# 커튼을 걷어라

블로그 정보 저널 <http://blog.daum.net/kisro>

저자 정보

발행일 2011.04.27 17:55:05

 블로그